

3차 기윤실 목회자리더십포럼

열린 커뮤니케이션, 열린 교회, 열린 목회
-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소통을 위한 대화마당

2010년 1월 28일(목) 오후 2시
명동 청어람 5실(명동역 3번 출구)

- 주관 _ 기윤실 목회자리더십포럼
- 주최 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3차 기원실 목회자리더십포럼

발행일 | 2010년 1월 28일

발행인 | 우창록

편 집 | 조제호

발행처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이메일_ trust@trusti.kr

www.trusti.kr

* 본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중질만화지, 고지율 60% 이상)로 만들었습니다.

목차/ 순서

3차 기윤실
목회자리더십포럼

- 사 회 : 신 동 식 목사(빛과소금교회)

- 주제강연
소통하는 교회, 소통하는 목회자
- 김 동 호 목사(높은뜻교회연합 대표) 4

- 발제 1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열린 교회
- 양 희 송 대표기획자(청어람아카데미) 7

- 발제 2
한국교회와 사회의 소통, 그 절망과 희망
- 배 덕 만 교수(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회사) 14

- 발제 3
단한 메신저에서 열린 대화자로
- 한국교회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에 대한 자기성찰 -
- 황 영 익 목사(서울남교회, 목회자리더십포럼 본부장) 21

- 종합토론

- 기윤실 목회자리더십포럼 소개



소통하는 교회, 소통하는 목회자



김 동 호 목사(높은뜻교회연합 대표)

1. 이번 제 3회 기윤실 목회자 리더십 포럼의 주제는 소통이다. 참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적절하고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소통은 이 시대 뿐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의 중요한 주제이다.
2. 왜 소통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있어서 소중한 주제일까? 그것은 교회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소명이 선교이기 때문이다. 宣敎란 敎를 宣 즉 베풀고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선교는 敎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선교는 성공적인 소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이다. 복음의 불통은 선교의 실패를 의미한다.
4.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리 만큼 배타적인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래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세계 선교 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우리만큼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다. 우리는 그 이유를 초대 한국 교회의 세상과의 성공적인 소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설명은 뒤에서 하려고 한다.
5.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몇몇 대형교회는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이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세상과의 불통을 통하여 왔다. 교회의 세상과의 불통은 성장한 교회의 교만함으로부터 왔다. 성장한 교회의 헛 배부름으로부터 왔다. 교회는 세상과 소통 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에 대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려고만 하였다. 그러한 교회에 대하여 세상은 오만하고 무례한 기독교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6. 1961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80불 수준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2만 불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원조를 공여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경제 성장의 공은 아무래도 정치보다 기업 쪽에 있는 것 같다. 나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한국 기업과 기업가들에게서 그 마인드와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기업과 기업가들은 소통에 성공한 대표적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7. 기업과 기업가들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고객감동이다. 감동은 소통의 가장 완벽한 단계이다. 그보다 낮은 단계는 공감이고 그 공감은 소통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업은 세상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과 소통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기업은 성장할 것이고 교회는 쇠퇴할 것이다. 그것은 논리이다.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8. 기업이 세상과의 소통을 위하여 집중하는 일은 서비스이다. 현대 자동차가 포니 액셀을 수출하여 기적적인 성공을 하고도 결국 실패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비스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의 성공은 상상을 초월한 서비스를 통하여 왔다. 한국 기업의 애프터 서비스는 거의 세계 최고가 아닐까 싶다. 은행, 관공서, 기업의 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 물론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다.
9. 소통을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것은 섬김이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섬김에 그 원인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자기 예배당부터 지은 교회가 아니었다. 한국교회는 그렇다고 자기 예배당을 짓지 않은 교회도 아니었다. 요즘 예배당을 짓지 않아야만 훌륭한 교회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짓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을 나중에 지은 교회였다. 먼저 세상을 섬기고 자신의 일은 나중에 할 줄 아는 교회였다. 이것이 세상과의 소통을 이루어냈고 세상의 공감을 얻어 냈고 더 나아가 세상의 감동을 얻어내 부흥에 성공하였다.
10. 그 좋은 예가 국채보상운동이 아닐까 싶다. 나라가 일본에 빚을 많이져서 경제적인 속국화 되어가자 교회가 앞장서서 국채보상운동을 벌였다. 남자들은 금연운동을 하여 나라 빚을 갚자고 하였다. 고종 황제께서 감동하여 담배를 끊으시고 금일봉을 교회에 보내셨다고 한다. 여자들은 탈환회를 조직하여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고, 학교를 세워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민족자본을 형성하고 민족의 기업을 키우자고 하였다.
11.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정신이 한국 사회에 감동을 주었다. 초대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세상의 공감과 감동을 얻어낼 줄 아는 교회였다.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2. 1984년은 개신교 100주년과 천주교 200주년이 되는 해였다. 필자가 속해 있는 통합특 교단은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백주년 기념관을 지었다. 약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 천주교는 200주년 기념으로 전국에 있는 맹인 개안 수술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예산은 약 11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3. 개신교의 100주년 기념관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천주교의 맹인개안 수술은 세상에 감동을 주었다. 개신교는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천주교는 그 때부터 선교 200주년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14. 높은 뜻 교회에서 탈북자와 빈민들의 자활을 위하여 열매나눔재단을 세웠다. 재단을 세우면서 직원들에게 부탁한 첫 마디는 절대로 다른 재단과 경쟁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재단과 경쟁하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기 때문이었다. 재단의 목적은 탈북자인데 경쟁심리에 휘말리게 되면 재단이 목적이 되고 탈북자가 수단이 되

기 때문이었다.

15. 교회들이 경쟁하면서 교회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세상을 섬겨야 할 교회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섬기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 초대 교회 때에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오로지 자신의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었다.
16. 세상은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회에 대하여 앤티가 되었다. 요즘 앤티들이 교회에 대하여 하는 말이 있다. <한국 교회 딱 세 마디. 모여라, 돈내라, 집 짓자>
17. 경쟁에서 성공한 교회들은 세상에 대하여 방자하고 오만한 교회가 되어갔다. 세상에 대하여 험박하고 힘을 과시하고 공갈치는 교회가 되었다. <한국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한기총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했던 말이다.
18. 비행기를 타면 스텔어디스들이 승객과 대화할 때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춘다. 20년 전 일본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소통하려면 자세를 낮추어야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진심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해야만 한다.
19. 한국 교회는 자신의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공감과 더 나아가 감동을 얻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열린 교회



양 희 송 대표기획자(청어람아카데미)

1.

한국사회의 현재상황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마 ‘소통(疏通)’이 아닐까 싶다. 최고 권력자로부터 유치원 아이들까지 한국사회는 소통의 부재를 호소한다.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오해를 받는다거나, 선의를 구조적으로 왜곡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언론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종교인 특히 개신교인의 말은 그 값을 잘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글은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살펴보고, 한국 개신교가 사회와 소통하고, 교회 내부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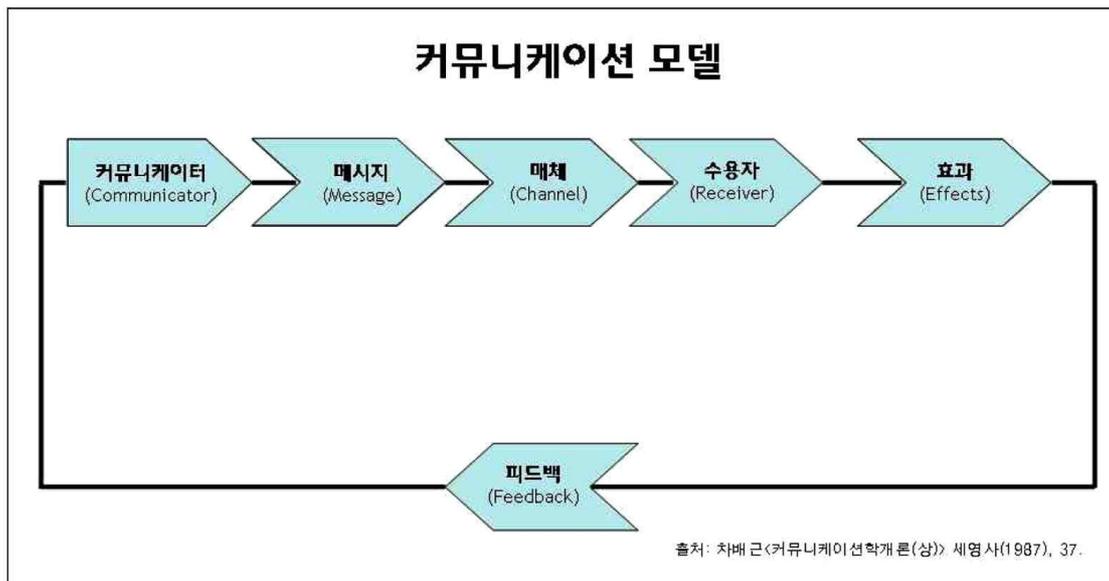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원래 ‘대화하다’란 의미의 라틴어 comunis 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이 단어는 공동체(communitas)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대화하고, 소통하는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욕구 발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공동체인든 그것이 건강하게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적 요소란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매우 복합적인 물음을 일으키는 분야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서를 잠시만 들춰보아도 수십 개의 전문적인 개념정의들을 만날 수 있다. 차배근 교수는 이를 포괄하여 커뮤니케이션이란 “생물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¹⁾ 다양한 논의를 가능한 종합적으로 담아내어 본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발원지(source)가 되는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그것이 개인인지, 집단인지에 따라서, 또한 내부적으로 어떤 동기와 규칙들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세부적 영역이 기다리고 있다. ‘메시지(message)’를 구성하고, 이를 어떤 ‘매체(channel, media)’로 실어 보내는

1)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개론(상)* (세영사, 1987), 25.

지에 따라 전체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크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되고, 고려해야 할 지점이 바뀐다. 개인간의 대화에 적용되는 원리와 매스미디어를 통한 소통에는 고려할 요소와 고민할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메시지는 '수용자(receiver)'에게 전달되고, 최초의 커뮤니케이터가 기대한 어떤 '효과(effects)'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최초의 커뮤니케이터에게 전달됨으로써 전체 과정에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한 교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모델이다. 실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전달과정에서 흔히 '잡음(noise)'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어서 원래의 메시지를 훼손하기도 하고,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더라도 수용자에 의해서 '거부(reject)' 되기도 한다. 혹은 전체 과정에서 각 단위마다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실패(failure)'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우리가 경험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매우 포괄적인 사건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을 때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짚어볼 수 있도록 해준다.

3.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놓고 말하는지에 따라 논의의 구조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모델 자체를 신학적 논의의 선상에 올려놓고 파악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도 있다.

1) 하나님의 '자기 계시'

때로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소통일 것이다. 커뮤니케이터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다른 매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용자에게 말씀하시

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는 창세기1장의 천지창조 기록을 꼽을 수 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커뮤니케이터가 자신의 뜻을 발하였을 때, 어떤 왜곡이나 부족함이 없이 창조질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그 결과를 돌아보니(feedback) 만족스러웠다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의 한 사례로 꼽을만하다.

2)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창조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이 인간과 만날 때에는 비록 그것이 직접적 대면일지라도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터가 다른 매개 없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거나,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었을지라도, ‘수용자’인 인간의 한계가 소통의 질을 결정한다. 인간은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제한된 존재이다. 종종 성경의 영웅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우치는 데에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라.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혹은 선명한 메시지에 반발하거나, 거절하기도 하였고(요나의 경우),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을 보았다고 참칭하기도 하였다(거짓 선지자들은 ‘본 것 없이, 들은 것 없이’ 예언하는 자들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은 언제나 예외 없이 ‘해석’의 문제, ‘순종’의 문제를 동반하고 나타난다.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근본적 층위에서 즉각적으로 완벽한 소통이 불가능함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는 기독교 신학에 ‘시간’의 개념, 즉 ‘종말론적 완성’을 요청하게 되고, 인간은 ‘시간 속을 사는 존재’, 즉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인간에게 점진적으로 드러난다는 입장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 기독교 역사에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즉각적 소통을 주장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언제나 그것을 완결된 것으로 여기기 보다는 시간 속에서 제한된 것으로 인식했다. 어느 한 시대, 어떤 한 경험은 본질적으로 초시간적인 진리를 온전히 담거나 표현할 수 없고, 카이로스적 유효기간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3) 인간과 인간의 소통

성경 전체를 휘감는 드라마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간의 어긋남을 지켜보고, 화해와 소통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성경은 그런 점에서는 인간 세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현실론’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속임과 오해가 진정성을 통해 극복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준다.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은 어쩌면 끝까지 동질의 ‘하나님 나라’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다만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존중해주는 선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현실이었다. 유대인과 헬라인 성도들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종과 노예 사이에도 행복한 결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바울 서신의 몇몇 구절들은 성도들 간에 발생한 갈등과 이견이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인간사이의 소통이 지극히 난제(難題)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여러 모양으로 등장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힘의 논리를 따라, 우세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압하는 것이다. 근대주의(modernism)는 그것이 종종 이성과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권력 아래 세상을 통

제하는 획일화의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소위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제기한 비판이었다. 하나의 목소리가 권위적으로 다른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는 방식(one voice over all)의 반대편에는 가능한 모든 목소리들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 liberating the different voices)이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는 일(voice for the voiceless)도 근대주의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찌 보면 주도적 목소리(dominant voice)가 상실되고, 권위가 무너지는 위태로운 시기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한 극단의 시대가 반대편으로 진자(振子)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쪽 극단이 진리는 아니었던 것처럼, 저쪽 극단도 진리는 아닐 것이다. 과거에 너무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고, 미래에 지나친 낙관을 할 이유도 없다. 다만,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의 시간대에 주어진 카이로스적 동적 균형(dynamic balance)을 잘 발휘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을 뿐이다.

4)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하나님의 백성'

요한복음1장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창세기1장을 연상시키는 문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또 한번의 가장 완벽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그는 말씀(message)이자, 하나님(communicator)였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따라(channel), 성육신(incarnation)을 통해 수용자(receiver)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동일시되었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한(effects) 존재로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과 인간'사이에서 결코 도달하지 못한 완전한 소통의 모습(해석과 순종)을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인간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고, 적용시키는 '수용자 중심적 모습(receiver-oriented)'을 대표하고 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의 간난신고(艱難辛苦)를 몸소 겪으며, 눈물과 웃음을 함께함으로써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고백은 실재가 된다.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라면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knowing Christ)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following Christ)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할 것이다. 이 작업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얼마나 집중하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그를 닮아갈 것인가(imitation of Christ)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그리스도인 개인에 의해 수행될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추구되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을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온전한 소통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해와 순종'의 제자도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런 작업은 시공간의 제한과 인간 자신의 한계로 인해 제약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 내적 존재(sein in der welt)'로서의 추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을 휘방하는 요인들을 끊임없이 걷어내고, 개선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방식 속에는 중요하게 아로새겨져 있어야 마땅하다.

4.

한국 개신교의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에 앞 절의 이해를 포개어 놓고 보면 취약점이 선명히 보이게 된다.

1) 말의 값이 떨어졌다

개신교인, 특히 복음주의자를 자처하는 그룹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말의 값’이 평가절하 되었다는 점이다.²⁾ 말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크고, 말을 지키려는 노력은 별로 없는 반면에,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기에 나오는 현상이다.³⁾ 말의 값이 떨어지면, 함량미달의 말을 수습하기 위해 또 다른 말들이 동원되는 바람에 ‘말의 인플레이션’이 등장한다. 말의 걸치장을 세련되게 하던지,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던지, 정말 말로 해결이 안되면 강한 비주얼로 호소하는 방법이 등장한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의 천박성을 형식미로 포장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전형적인 ‘선전선동(propaganda)’ 이론들 안에서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다. 대중에게 진리와 진실에 의한 설복이 아니라, 거대함과 화려함과 집단 의식에 호소하여 이성적 판단보다 정서적 함몰을 우선시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구사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이것이 오늘날 대형교회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것이다.

이런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경향의 대표적 결과가 설교표절이다. 목회자의 설교표절을 경험한 교회의 성도들이 정작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설교의 내용 자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어딘가에서 갖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경험과 예화를 스스로의 기도와 고민의 결과로 포장하고, 그것으로 감정선을 건드리는 연기를 해낸 설교자의 ‘말’을 더 이상은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장 진실한 소통의 순간으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응당 걸어야 할 ‘말의 무게’에 눈금을 속인 설교자는 설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代言)하는 것’이란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저울에 달아보아 미달한 존재가 되고 만다.

최근 관상기도(contemplative prayer)처럼 내면을 응시하는 기도에 관심이 일거나, 지식을 집어삼키는 식의 독서가 아니라, 찬찬히 되새기는 영성적 독서법인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 등이 각광받는 데에는 이렇게 ‘허무한 말 잔치에 지친 심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성의 훈련(discipline of simplicity)에 대한 강조가 리처드 포스터나 로잔운동 같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서구의 풍요와 세계의 빈곤에 대한 반성’으로 70년대에 이미 제기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오늘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누리느라 30년 전의 지혜를 까먹은 것일 수 있다. 말로는 천리를 쉽게 달릴 수 있다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마5:41)하라는 말씀을 받았다. 성 프란시스가 그랬었던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말을 하라”

2) 말의 길이 트이고 있다

교회 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설교 만은 아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소통의 문제는 설교와는 다른 방식의 구도를 갖고 있다. 개신교 교회론은 ‘사제적 독점’을 인정하지 않고, 만인사제주의(priesthood of all believers)

2)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2008년, 2009년 시행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지도자,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32.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데이비드 키네만, 게이브 라이언, *나쁜그리스도인*(살림, 2007), 56에는 미국의 경우에도 복음주의자들이 ‘위선적이고, 남을 판단하는’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3)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일반인들과 이혼율, 성경험 비율 등에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의 교육실패로 봐야 할지, 젊은 세대의 표리부동의 결과로 봐야 할지 혹은 새로운 도덕율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란 의미인지 논란거리이다.

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천주교와는 다른 상호소통의 신학을 갖고 있다. 각 교회가 선택한 교회 정치 제도가 감독제(episcopalianism)이건, 회중제(congregationalism)이건, 대의제(Presbyterianism)이건 상관없이 성직자와 장로 등은 아래로부터의 '선출(election)'과 위로부터의 '승인(anointing)'이란 이중구조를 함께 갖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개방된 언로(言路)의 확보 없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며, 그것이 없다면 어떤 개신교 정치제도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 논의를 정교화하고, 보완해왔다. 고전적 이론들이 오늘날 그대로 들어맞는 경우는 많지 않다.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더욱 촘촘하고, 공감각(共感覺)적이며,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구를 창출하기까지 한다. 개신교적 교회론이 성도들간의 소통을 근본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호소통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교회 내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대형화된 예배의 일방향적 전달이나 중앙집중식 통제의 일사불란함을 위해 동원되기보다는, 성도들 상호간의 수평적 소통을 긴밀하게 하기 위해 집중 투입되는 것이 마땅하다.

초대형교회(mega-church)에 대한 논박이 새삼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분명 크기 자체가 문제가 된다. 스스로 감당 못하는 크기는 개체의 생명을 기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나는 초대형교회의 존재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그 덩치에 걸맞은 존재양식을 형성했느냐를 묻는 것은 중요하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강화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현재 한국사회가 목격하고 있는 온라인 소셜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획기적 등장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새롭게 정의하게 한다.⁴⁾ 요즘은 대학 강의실에서도 교수가 설명하면, 웹으로 바로 찾아서 맞고 들린지를 지적할 수 있는 시대이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가르칠 수 있고, 모두가 배우는 존재이다. 이런 상황은 교회 내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변화를 촉발하게 된다. SNS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용경험은 30-40대에서 오히려 많다. 20대 아래는 그런 환경이 일상의 조건이다. 과연 이런 변화는 예배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이며, 설교자에게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게 할 것인지,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게 될지 기대된다.⁵⁾

5.

한국 개신교의 '말의 값은 떨어지는데, 한국사회에서 '말의 값은 더욱 넓고, 깊게 터져가는 중이라면, 과연 이것은 개신교회에게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일차적으로 위기로 느끼는 이들이 많다. 오죽하면, 개교회주의적 체질이 몸에 밴 개신교계에서 공동으로 '언론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일반언론들이 반기독교적이란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홍보를 강화하고, 오해를 바로잡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문제가 그렇게 피상적인 것이었다면 차라리 다행이었겠다. 지금이라도 문제인식의 수준을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끌고 들어가

4) 스마트폰의 시대를 갑자기 앞당긴 아이폰(iphone)의 등장, 140자로 전세계와 소통하는 트위터(twitter) 사용인구 증가 등이 당장 일년 내로 물고을 사회적 행동양식과 일상생활의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5) 소셜미디어에 대한 좋은 입문서로 읽히는 송인혁, 이유진등이 지은 <모두가 광장에 모이다: 소셜이 바꾸는 멋진 세상>(INU, 2010), 296-299에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의 예를 들어 미국의 교회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책의 저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었다면 이머징 처치(emerging church) 그룹을 비롯해서 훨씬 전향적인 사례들을 많이 발굴했을 것이다.

서 분석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 복음의 핵심 빼고는 다 바꿀 각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라고 자조하며 체념하는 한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하나의 목소리로 일사불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렵다는 것은 명확한 현실이다. 그러나, 여러 목소리와 공존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간, 한국 개신교가 가장 치열하게 연마해야 할 자기수행의 장이 거기에 있다고 본다. 다른 의견을 '사탄적'이라고 정죄하지 않기, 남의 이야기를 시늉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청'하기,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 말고 누구에게나 '배움'을 청하기, 잘못은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고 고치기, 선행을 홍보하기보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중앙무대에 서기보다 주변부를 돕는 숨은 손길 되기, 현금 내리는 강조보다 선한 일에 현금 쓰는 데 과감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학벌, 재산, 권력으로 인한 기득권 인정 안 하기...

커뮤니케이션은 기술(technique)이 아니라, 삶의 예술(art of living)이다. 기독교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아마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투명한 자기헌신에 있을 것이다. 한국 개신교가 얼마나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냐는 거의 전적으로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따르느냐에 달려 있는 듯하다. 

=====

양희승: 청어람아카데미 대표기획자. 블로그 <http://post-evangelical.tistory.com> 과 싸이월드 클럽 '복음주의'(http://evangelical.cyworld.com)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사회의 소통, 그 절망과 희망



배덕만 교수(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회사)

들어가며

현 정권이 들어선 후, 수 많은 사회적 갈등이 거세게 표출되었다.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집회가 전국을 뒤덮고, 용산참사, 미디어법 개정,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및 4대강 개발, 세종시 수정,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한국사회는 심한 갈등과 혼돈의 시간을 보냈다. 다른 정권 시절에는 갈등과 대립이 없었다는 말도 아니며, 유독 현 정권 하에서만 갈등의 농도가 극심하다는 뜻도 아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창출과정에서 한국교회의 힘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고, 그 핵심 구성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점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교회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중 “소통의 부재”가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체투지”수행을 통해, 현 정부를 향한 비판의 메시지를 몸으로 전하기도 했다. 이런 비판은 현재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현 정권이 한국교회의 산물이라면, 현 정부를 향한 “소통부재”의 비판은 한국교회의 산물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필요에 둔감하다면, 결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통은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닌,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 사회적 소통이란 관점에서 한국교회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속에 드러난 희망의 빛과 절망의 그림자를 함께 성찰하며, 이 시대의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교회와 사회의 소통: 그 역사적 회고

1. 일제 식민 통치기

한국의 20세기는 일제의 식민화 과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 1907년 한일신협약을 통해 조선의 식민화 기반을 확보했고, 마침내 1910년 한일합방을 완성했다. 이로써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합방 후, 일제는 ‘무단정치-> 문화정치-> 민족말살정치’등 시기별로 통치방식을 변경하며, 조선을 억압하고 착취했다. 이 시기에 조선은 식민통치라는 새로운 상황에 강제적으로

적응함과 동시에, 국권회복을 위한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의 한국교회는 이처럼 새롭고 부정적인 정치상황에서, ‘민족복음화’라는 자신의 본래적 목적과 ‘민족해방’이라는 민족의 공동과제를 동시에 성취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식민지 초창기에 한국교회는 정교분리의 입장을 고수하며, 철저히 종교적 활동에 자신의 관심을 한정했다.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의 식민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동안, 한국교회는 이런 파국적 상황에 대해 어떤 조직적 저항도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1903년 원산부흥회, 1907년 평양대부흥, 1910년 백만인구령운동이 교회사에 수록된 주요사건목록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 및 내적 동력을 형성했으나, 민족의 사회적 현실에는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하지만 일부 선각적 기독교인들에 의해 저항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안창호, 이승훈 등이 주도한 신민회로 인해, 1911년 105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통해, 교회와 일제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교회성장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식민지 하 민족과 교회는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3·1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러나 3·1운동의 실패 후, 교회는 일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 대신, YMCA를 중심으로 한 민족개량운동에 치중하게 되었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 대신 교회의 내적 성장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교회 내에서도 이용도와 김익두로 대표되는 신비주의적 부흥운동이 주류를 형성하고, 박형룡의 주도 하에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신사참배로 신앙적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곧 교단적 차원에서 일제에 적극 협조하며, 능동적으로 “내선일체”의 길을 걸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1925년에 조직된 조선공산당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일제와 더불어 공산주의와도 적대적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2 1940년대-50년대

세계는 제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체제에 돌입했다. 해방과 함께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통치 되면서 민족은 이념적 차이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가열된 냉전과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으며, 일제청산, 민족통일, 경제건설 등의 막중한 과제에 직면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해방공간에서 교회재건 및 친일문제해결이란 내적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또한 공산주의와의 부정적 경험 속에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정리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에도 직면했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는 교회재건 과정에서 일제청산문제가 암초로 작용하며, 내적 분열의 홍역을 툭툭히 치러야 했다. 동시에 이념적 갈등으로 족분열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교회는 민족통합의 중심세력으로 기능하는 대신,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며, 민족분열에 일조하고 말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사참배를 둘러싼 친일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세력들이 교권을 장악함으로써, 이후 교회는 민족문제에 앞에 “원초적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교회의 중심공간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했고, 냉전 기 남한 사회에서 이념적/신학적 재적응의 과정을 혹독하게 통과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북한공산당과의 부정적 경험과 남한사회에서 힘겨운 재적응의 과정을 통과하며, 자연스럽게 ‘냉전의 치유자’란 성서적 기능 대신, ‘반공의 홍위병’이란 이념적 기능에 집중했다. 즉, 해방과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한국교회는 남한정권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 부여, 해외원조의 에이전트 기능, 부흥회 및 기도원 운동을 통한 신앙적 치유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런 행보를 통해, 특정이념과의 배타적 동일시, 맹목적 친미세력, 탈 역사적 신앙운동이란 비판에도 직면해야 했다.

3. 1960년대-80년대

1960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한국사회는 다시 한번 격동의 세월을 보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4·19혁명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분출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5·16 군사정변으로 와해되며, 군부독재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사회는 '국가주도형 경제개발, 정경유착, 군부독재'로 특징짓는 파시즘 체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 사이에서 극단적 대립/충돌을 경험했다. 10·26, 12·12, 5·18, 6·10, 6·29 등으로 표시되는 정치적 혼돈 속에, 한국사회는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몸부림쳤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분단과 통일, 독재와 경제성장이란 새로운 사회적 현실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족의 시대적 과제에 동참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분열과 대립으로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한국사회 속에서 통합과 치유를 위한 제사장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혁과 성숙을 위한 예언자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심각한 내적 갈등과 분열을 경험했다. 시대 및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해법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극심한 대립이 발생한 것이다. 진보진영은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성장과 개발의 부작용이 극심하게 노출되던 도시와 산업현장에 관심을 집중하며, 신학과 실천의 통일을 위해 분투했다. 도시산업선교회와 민중신학이 이 흐름의 상징이었다. 반면, 보수진영은 사회현실에 침묵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보냈고, 자신들의 일차적 관심을 전도와 교회성장에 두었다. 빌리 그래함, CCC, 대형집회가 그 시대의 상징이었으며, 교회성장 및 적극적 사고방식이 이 시대의 신학이었다. 결국,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교회는 KNCC와 한기총으로 양분되었고, 경쟁과 성장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한국사회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빠르게 이동했다.

4. 1990-2000년대

1990년대는 공산권의 붕괴와 냉전의 해체로 막이 올랐다. 이후 세계는 절대강국 미국의 막강한 영향 하에, 신 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철저히 재편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는 고상한 이념이 아닌, 경제적 번영에 일차적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 경찰로 군림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다국적 기업과 군대가 'Pax Americana' 구축을 위해 조폭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소련과 동구권 대신, 중국과 유럽연합이 미국의 새로운 경쟁자로 급부상했고, 그런 세계적 갈등 구조 속에, 911사태와 이라크전쟁이 발발했다. 이로써 경제적 갈등은 종교적/인종적 갈등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거센 세계화의 물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IMF라는 경제적 파국을 경험했고, 명분을 상실한 이라크 전쟁에 동원되며,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에도, 이런 복잡한 국제적·국내적 현실 앞에, 경제회복, 복지사회, 민족통일, 민주화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동안 한국교회의 행보는 어떠했는가?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이 시기에 급속도로 진척된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에 탁월하게 적응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화두는 성장이었으며, 그것은 대대적인 전도 및 선교활동과 교회건축으로 구체화되었다. 교회성장을 위한 수 많은 혁신적 프로그램들이 실험되고, 동네마다 대형교회들이 우후죽순 건축되었다. 경영학과 심리학이 목회에서 신학의 자리를 대체하고, 경제적 번영이 축복으로, 자본주의가 기독교적 시스템으로 정당화되었다. 이런 현상은 신학의 보수화를 초래했으며, 동시에 교회의 정치화를 촉진했다. 종말론은 설교에서 실종되었고, 예배는 경건대신 감동에 무게 중심을 두었으며, 고난과 헌신의 십자가신앙 대신 감정적 흥분과 신비적 현상에 치중된 오순절신앙이 교회의 문화를 장악했다. 그럼에도, 교회성장은 정체되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거세졌다. 수평이동이란 기현상과 함께 소수의 초대형교회 및 절대다수의 미자립교회들로 한국교회의 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

게 교회의 재정능력이 향상되면서, 해외선교의 열풍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선교의 노력도 물량주의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분당샘물교회 사건을 통해 국제적/국내적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한 교회 내부의 진지한 반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교회의 과도한 자본주의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청빈, 공동체, 제자도'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 일고 있다. 감정주의적인 오순절 신앙의 대안으로 침묵기도와 성례전을 중심으로 한 영성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배타적/교조적 포교활동 대신 삶을 통한 실천적 선교 개념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깊은 우려 속에,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려는 다양한 기독교 NGO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움직임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 희망의 싹으로 기능하고 있다.

절망과 희망

1. 절망 : 소통의 부재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한국교회는 한국사회가 격동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사회 및 시대와 적절하게 소통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노출해 왔다. 그 모습과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교회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가 일제의 침략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교회가 미국선교사들의 절대적 영향 하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테프트 조약"을 통해,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서로 용인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일제의 부당한 정치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의 영향 하에 있었던 한국교회도 자신의 행동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와 타협 혹은 협조할 수 밖에 없었던 교회는 해방 후 교회 및 국가재건 과정에서 민족의 양심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없었다. 또한 월남한 서북출신 장로교인들에 의해 재편된 남한 교회도 냉전기 동안 이념적 중립 혹은 평화의 중재자로서 기능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한국교회가 친미, 친일, 반공이란 태생적 혹은 역사적 정체성에서 기인한 한계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한국교회는 각 시대마다 사회의 절박한 요구에 건강하고 책임 있게 반응할 수 없었다.

둘째, 한국교회는 결정적 순간에 비겁했다. 앞에서 언급한 태생적 한계는 한국교회의 행동에 결정적 제약으로 기능했다. 때로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비록 민감하게 자각했을지라도, 지배문화 및 기득권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번번히 침묵하거나 타협할 수 밖에 없었으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수치스런 오류도 범했다. 3.1운동을 제외하곤, 일제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점, 심지어 교단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점, 일제의 전쟁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독재정권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예언자적 저항을 포기했던 점 등은 교회가 사회의 진정한 요구를 목살하고, 비겁하게 행동했던 몇 가지 예일뿐이다.

셋째, 한국교회는 자체 문제에 함몰되어, 사회를 위한 응집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해방공간에서 감리교회는 일제잔재청산문제로 재건과와 복흥과로 분열되었다. 1946년의 일이다.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장로교회는 고신으로, 기장과 예장으로 분열했다. 각각 1952년과 1953년에 벌어진 사건이다. 4.19와 5.16으로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성결교회는 기성과 예성으로 분열했다. 1961년에 말이다. 한편,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자신의 독재체제를 확립하며, 1974년에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인권탄압을 구체화하던 시절, 한국교회는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1972), 엑스플로 '74(1974), 77 민족복음화성회(1977), 80 세계복

음화대회(1980) 등의 초대형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연속적으로 개최했다. 자신의 교세확장에 일차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동참할 여력이 없었다.

넷째, 한국교회는 사회에 귀 기울이고 행동할 때조차,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 한국교회는 시대/문화/사회를 주도하기 보다, 기회주의적으로 반응한 측면이 강했다. 예를 들어, 3.1운동의 경우도, 민족적 고통에 공감한 순수한 민족운동이 아닌, 일제의 교회탄압에 대한 반발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도 민족적/정치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행동한 것이라기보다, 종교적/신학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저항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독재정치 하에 침묵하며 동조했던 이들이 민주화 이후 소리 없이 무임승차한 경우도 매우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보이며,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보수기독교의 정치활동도 신학적 소신에 의한 일관된 행동이라기 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 강조되고 유행되는 교회의 사회복지활동도 이웃에 대한 순수한 선행이라기 보다는 전도의 도구내지, 교회의 자기 과시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이런 모습은 교회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해프닝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국교회는 자신의 이념적/신학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자신의 신앙 혹은 신학적 전통을 보존하는 것은 교회의 막중한 사명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신학은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대와 건강하게 호흡하고 소통하지 않을 경우, 그 신학의 정당성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교회는 기존의 신학을 보수하는데 역량을 집중한 반면, 그 신학이 시대에 적응하고, 시대에 참여하며, 시대를 변혁하는데도 탄력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비록 토착화신학이나 민중신학이 교회의 새로운 환경에서 독창적이고 책임 있는 신학작업을 시도했으나,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대부분의 교회는 전통신학 및 태도를 배타적으로 고집하며, 신학과 시대의 창조적/책임적/실험적 만남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했다. 이로써 변화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새로운 해석과 행동의 요청에 교회는 용기 있게 반응하거나 행동하지 못했다.

2 희망 : 소통의 가능성

한국교회사 130년을 돌이켜 볼 때, 과연 황금시대는 있었는가? 혹은 앞으로 그런 시절을 꿈꿀 수 있을까? 돌아보는 걸음마다 은혜의 자국 대신, 수치와 치욕의 그늘이 더 짙은 것은 아닐까? 물론, 교회의 과거가 수치와 모욕으로 점철된 것만은 아니다. 가시밭 속에도 백합화는 피었고, 떡구름 틈으로 햇볕도 비췌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했으며, 그 빛의 조명 속에 지금까지 교회사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리라. 그렇다면, 그 빛을 통해 품게 된 희망의 실체는 무엇일까?

먼저, 한국교회는 결코 시대에 무관심하지 않았다. 물론, 대다수는 무관심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용기 있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 비록 그 수가 적고, 집단적 차원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진 경우가 더 많았더라도, 이 부분은 결코 간과되거나 경시되어선 안 된다. 식민지 초기에 일제에 저항했던 비밀결사체 신민회는 안창호, 이승훈 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자, 일제는 105인 사건을 조작해서 이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식민통치가 극심해 질 때, 교회는 3.1운동으로 저항했으며, 3.1운동이 실패한 후에는 만주의 무장투쟁에 합류하거나, 국내에서 민족계량운동에 동참했다. 해방 후 독재시절에는 독재에 항거했고, IMF로 경제적 파국을 맞았을 때, 희생자들을 적극적으로 품었다. 교회의 양심, 복음의 능력은 살아 있었다.

둘째, 한국교회는 자신의 규모와 힘에 비해 큰 역할을 감당했다. 한국교회 역사 130년은 다른 나라의 기독교 역사와 비교할 때, 결코 긴 세월이 아니다. 현재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기독교인구도 유럽이나 남미

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감당한 역할과 공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구한 말과 일제 기간 동안,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학교는 한국근대화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으며, 한국교회는 수많은 지식인과 정치가, 민족운동가를 배출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성경, 찬송, 신문, 서적, 예배문화 등은 한국의 한글, 문학, 출판, 교육, 예술 등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역사적 평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군정 동안 선교사 2세들이 고문관으로 활약하고, 제1공화국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거 등용되었던 점도, 해방 이후 한국정치사에 기독교가 남긴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이다. 또한 근대/산업화 과정에서 교회가 사회, 문화, 경제, 정치, 학문에 끼친 영향도 앞으로 깊이 연구되어야 할 주요 항목들이다. 한국교회는 결코 무책임하거나 무능한 종교집단이 아니었다.

셋째,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성장과 함께 성장했으며,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자신의 책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아마도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그룹 중 하나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대형화됨으로써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다양한 재능과 힘을 통해, 다양한 종교적·사회적 책임을 수행한 것도 사실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심장병어린이수술사업 및 굿네이버스 활동이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조직되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감시자로서 정부와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있다. 또한 교회가 배출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및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실천적 신앙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시대와 대화하며, 자신의 책임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감당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다. 한국교회는 살아 있다.

나가며: 세상과 말이 통하는 교회를 꿈꾸며

이제 글을 마무리하며, 한국교회가 사회와 보다 열린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및 시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교회는 자신 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내적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하는 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했다.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한국교회는 때로는 신학적 차이 때문에, 때로는 정치적/이념적 차이 때문에, 시대의 요청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했다. 그 결과, 다양한 이유로 분열된 한국사회를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대신, 그 분열에 동조하거나 심지어 주도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현재에도 이런 양상은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최근 WCC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교파 간의 갈등과 대립은 이런 현실의 단적인 증거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가 사회통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한국사회의 통합 및 민족통일을 논하기 전, 교회는 협력과 공생의 방법을 먼저 터득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교회는 변화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신학적·정치적 정체성은 부분적으로 냉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분열 및 이념적 대립의 현장 한 복판에 교회가 있었고, 그 현실의 가장 혹독한 피해자 중 하나가 교회였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신학 및 정치적 측면에서 강력한 보수세력으로 자기정체성을 확고히 형성해 왔다. 이런 경험과 자기정체성은 한국근대사의 여러 국면에서 한국교회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내적 동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했다. 물론, 여전히 한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요, 냉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세계적 차원의 냉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경쟁상대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더 이상 가난한 제3세계 국가도 아니며, 상당한 수준

의 민주화도 성취했다. 교회 또한 더 이상 주변부에 위치한 신흥종교집단이 아닌, 한국사회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종교로 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변화를 거부하고, 전통적 입장만을 배타적으로 고집할 때, “건강한 보수” 대신 “꼰통 보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자신의 소중한 유산은 확고한 신념 속에 보존하되,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과 요구에 탄력적/창조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자기갱신의 수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제사장과 예언자의 기능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그리고 균형 있게 감당해야 한다. 물론, 일제 식민통치와 군부독재의 터널을 통과하며, 한국교회가 제국과 군부를 향해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체제와 문화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부흥회와 자선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목회가 상처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긍정적 가치를 지니지만, 동시에 그것이 타락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와 구체적 저항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부패와 타락의 동조자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에도 한국교회는 강력한 보수세력의 영향 하에, 특정 이념 및 정권에 대한 배타적 지지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이념적 타자들에 대해선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절대권력 앞에서 비판적 기능을 포기하고, 이념적 타자를 향해 마음을 닫는다면, 결코 한국사회의 방주로서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한국교회는 중심에 대한 탐욕을 포기해야 한다. 오랫동안 기독교는 한국사회의 이방인이었으며, 주변의 종교였다. 하지만 그 시절, 한국교회는 말 그대로 “창조적 소수”로서, 사회변혁의 결정적 동인으로 기능했다.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해 민족계몽에 기여할 때, 또 3.1운동으로 일제에 항거할 때, 한국교회는 사회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변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중심을 흔들었고, 소수였지만 다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새,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중심부로 진출했다. 막강한 재력과 인력을 통해 한국교회는 정치권을 포함한 한국사회 전반에서 “큰 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성장이 둔화되고, 사회적 차원의 거센 공격과 저항에 직면했다. 교회의 물량적 힘은 변혁의 동력이 아닌, 비난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한국교회가 중심에 대한 탐욕을 품고, 그 욕망의 실현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발생한 비극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초심을 회복하고, 사회의 중심이 아닌 주변의 자리를 용감하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끝으로, 한국교회는 시대의 요청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요청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자신의 본질적 임무에 충실 하는 것이다. 세상의 이념과 문화를 배타적으로 추종하는 대신, 예수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우상에 절하는 대신, 사랑과 겸손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치적 기득권을 탐하며 세상에 군림하는 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겸손히 걸어가는 것이다. 핵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이 땅에서, 전쟁의 칼 대신 살림의 종을 울리는 것이다. 수많은 이유로 갈갈이 찢어진 이 사회를 향해,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다. 한국교회여, 귀를 열어라! 

닫힌 메신저에서 열린 대화자로

- 한국교회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에 대한 자기성찰 -

황 영 익 목사(서울남교회, 기윤실 목회자리더십포럼 본부장)

1. 들어가는 말
2. 커뮤니케이션과 교회의 증언
3.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리
4. 한국교회 선교 커뮤니케이션 진단과 대안적 모색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지금 한국교회는 분명 위기에 처해 있다. 교회의 위기에 대한 담론이 발생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 처럼 모두에게 체감될 정도의 전면적인 방식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한 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위기의 본질에 대한 진단은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위기의 발생요인이 교회 외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교회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해결 역시 가시적인 증세를 완화시키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교회가 그 본연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달려 있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한다.

발제자는 이러한 위기의 근원이 다름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회의 무지와 미숙함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¹⁾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고 이를 전하는 한국 교회회의 증언의 구조와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의 교회의 상황과 그간 교회가 행해온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 역시 성서적이고 상황에 적합한 선교 커뮤니케이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례가 없는 급속한 수적 성장을 이룬 과거 한국 기독교의 성장신화가 붕괴되고 이제는 정체와 감소로 치닫는 상황의 이면에는 한국교회가 과거에 행하였던 선교 커뮤니케이션이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아직 대안적 소통 구조를 확립하지 못하였다는 엄연한 사실이 놓여있는 것이다.

1)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의 어원은 본래 '공통' 또는 '공유'한다 혹은 나누어갖는다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communicare'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communicate는 라틴어 상찬(Lord's supper)과 '어떤 행위와 상황을 공유한다'는 그리스도교 의미의 이중성을 지니는 'Communion'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지식, 정보, 의견, 신념, 감정 등을 공유 또는 나누어갖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최창섭, **교회커뮤니케이션**.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3, 26. 이 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정의, 복음 커뮤니케이션이나 선교 커뮤니케이션 등의 용어와 개념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 짧은 글에서 상세히 다룰 수 없을 뿐 아니라 핵심 논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 교회의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성서적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에 따라 대안적 소통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교회 내외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주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다룬다. 그리고 이 글에서 의미하는 선교란 해외선교나 복음전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복음화와 이와 관련된 제반 실천과 교회의 소통 전체를 의미한다. 또한 자기성찰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중추적인 원리만을 다룰 것이다. 전문적인 연구와 극복을 위한 프락시스는 학자들과 목회자를 비롯한 현장전문가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커뮤니케이션과 교회의 증언

A.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신학적 기초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방식에 기인한다. 즉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로 드러내시고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²⁾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현현은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³⁾ 성령은 또한 친교의 영이시다. 성령의 코이노니아(koinonia)는 하나님과의 친교와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간의 친교와 소통을 이루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총화이며, 하나님 자신의 소통의 방식이다.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은 삼위일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임성빈은 삼위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⁴⁾ 그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삼위일체적 커뮤니케이션이요 둘째는 세상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환경과 환경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한다.

따라서 하나님 체험과 하나님 신앙에 기초한 기독교는 커뮤니케이션의 종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는 그분과의 소통 가운데 세상과 소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을 통하여 신과의 일치, 인간 간의 연합, 인간과 우주 질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인류와 하나님과 하나됨을 모색하는 전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한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로 나아간다. 커뮤니케이션은 교회의 존재방식이며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흐르게 하는 통로이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여정을 지탱하게 하는 진정한 힘의 근원이기도 하다.

B. 커뮤니케이션과 복음

기독교의 복음의 자기 표현과 전달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이에 기초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체험, 토라를 비롯한 신구약 성서, 그리고 성서가 가르치는 제반 도덕적 삶의 원리와 지침은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나님의 계시, 즉 신적 커뮤니케이션이 없이는 성서적 종교체험이 존재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체험과 신앙고백적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인간 상호간의 커뮤니

2) 찰스 크랩, 김동화 역,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IVP, 1991, 23

3) 최창섭, 27

4) 기독교커뮤니케이션포럼 편, **기독교커뮤니케이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45-46

5) Ibid., 41

케이션이 없이는 신앙의 전달과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기독교 진리와 복음의 증언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복음전파 역시 커뮤니케이션이다.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파되고 그 생명을 타자와 나눈다. 최창섭은 복음 전파의 주요 내용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 1)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구원, 2) 하나님의 나라, 3) 해방의 메시지(Message of Liberation), 4)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 5) 폭력의 배제, 평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⁶⁾ 이 가운데 특히 다섯 번째의 요소는 복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리를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즉 복음은 자기 스스로를 전달함에 있어서 폭력의 방식을 배제하고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C. 커뮤니케이션과 교회의 증언

교회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이중적인 사명을 지닌다. 즉 교회는 모으고 보냄으로서 복음을 증언한다. 먼저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모은다.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긴다. 동시에 교회는 사람들을 보낸다. 세상 속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삶의 현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복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전자를 모으는 구조(gathering structure), 후자는 보내는 구조(sending structure)라고 부를 수 있다. 사람들을 모으고 또한 증인으로 파송하는 일과 관련된 케뤼그마, 다다케, 레이투르기아, 코이노니아, 다이코니아 등 교회의 본질적 제 영역은 모두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또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동체이다.⁷⁾ 교리의 가르침, 증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나타내는 모든 차원이 커뮤니케이션이다. 특히 케뤼그마, 즉 복음의 선포는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과 관련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어떤 특성의 행위만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즉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D. 선교 커뮤니케이션, 함께 하는 교회

선교(Mission)는 복음의 자기 증언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선교란 다름 아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라는 말 속에 복음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원리와 활동을 농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생각 하는 선교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방법론과 효과적인 전달의 매체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의 증언, 즉 복음 커뮤니케이션이란 '함께 함'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이 아닌 만남이요 대화이다. 그런 면에서 의사소통의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앎과 만남이 중요하다. 테오 순더마이어는 "선교는 만남으로 살고 또 만남 속에서 자신을 실현하기 때문에 선교학은 의사소통학이 아니라 해석학에 기거한다."⁸⁾고 말함으로써 온전한 만남을 위한 해석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즉 소통을 위한 듣기가 필요하며 이해를 위한 해석학적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듯 진정한 함께 함과 열린 대화로 나아가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교회의 존재방식과 태도의 급진적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6) 최창섭, 358-362

7) 최창섭, 209

8) 테오 순더마이어,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16

3.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리

A. 복음화,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

복음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복음화란 기독교 진리와 가르침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세계를 기독교화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선교란 이교의 세계로 기독교 복음을 전달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복음화란 비기독교권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교의 주체는 다름 아닌 교회이다. 즉 전형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구조에 의하면 교회는 메신저이며, 메시지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명제적 진술이며, 매체는 제반 전도방법론이며, 수신자는 기독교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타종교인들이다.

복음화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활동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개인적, 영적, 내세적, 피안적인 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물질적, 현세적, 역사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원이다.⁹⁾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고 구현된 복음에 근거하여 개인의 회심을 이끄는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와 사람들의 삶의 구조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며 가난한 자를 격려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¹⁰⁾ 이러한 관점에서는 선교란 “하나님이 지상에서 하시는 다양한 활동, 즉 보살피고 지탱시키고 변혁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하고, 진정한 샬롬(Shalom)을 주는 것이다.¹¹⁾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다. 즉 교회는 복음화의 결과물을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복음화를 위해 파송된 하나님의 도구이다. 교회는 보내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이다.¹²⁾ 구원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은 선교의 범위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것보다 더 포괄적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¹³⁾

B. 총체적 선교,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가 함께 성령을 보내신 사실에 근거한다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고전적 명제는 전통적 선교관에 큰 영향을 주어 총체적 선교라는 보다 넓은 차원의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그것은 선교란 다름 아니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파송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란 교회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¹⁴⁾ 교회는 선교에 대해 전권을 가진 주체라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의 도구인 것이다. 이 관점에서 수행하는 선교는 더 이상 교회건설이나 영혼구원만을 그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봉사하는 것이다.¹⁵⁾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충만함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계가 직면한 제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의 실천이 곧 선교행위이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활동인 것이다. 복음과 불신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종교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전통적 선교관에서

9) 데이비드 J. 보쉬., 591

10) 폴 스티븐슨, 홍병룡 역,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성경적 관점에서 본 소명, 일, 사역*. 서울: IVP, 2001, 243

11) Ibid.

12) 데이비드 J. 보쉬, 550

13) Ibid., 592

14) 데이비드 J. 보쉬, 578

15) Ibid., 579

참여와 섬김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¹⁶⁾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선교 커뮤니케이션 역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메신저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 선택되고 보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소통의 도구이며 매체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질 때에 교회는 비로소 자신의 소명을 올바르게 발견하고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C. 문화화

선교 커뮤니케이션은 일종의 문화화 과정이다.¹⁷⁾ 초대교회 이래 기독교의 복음이 헬라문화에 적합하게 복음을 번역하며 존재한 이래 기독교의 역사는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과 복음의 번역과 재해석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문화 속에 번역된 것으로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 종교는 문화라는 형식을 통해 발현되고 꽃을 피우고 전달되고 수용되어진다. 문화와 교섭하지 않는 소위 순수한 복음은 모호한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아서 곧 사라지게 되는 반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문화와 교섭하게 되면 그 본질을 잃게 되어 단순한 문화적 이념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¹⁸⁾ 하지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문화와 밀접하게 교섭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위험들을 극복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자기를 증거하고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을 통하여 확장되어 왔다.¹⁹⁾

선교란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한 문화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란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특정 짓는 신앙, 행위, 지식, 상벌, 가치, 목표 등의 총체적 구축물이다. 요컨대 문화는 특정 사회 사람들이 가진 것, 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로 이루어진다.²⁰⁾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문화적 조건 상황 안에서 새로운 정보와 종교적 진리를 듣게 되고,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수용한다. 그러므로 문화간 이해는 공동의 듣기를 전제로 한다. 특히 한국의 종교적 토양과 문화 속에서 형성된 종교적 관념과 언어 등에 대한 이해와 만남을 요구한다. 선교 백수십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한국문화와의 관계에 있어 지금도 이러한 만남과 번역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근대적 문화와 모더니즘적 합리성과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적 특성이 혼재된 지금의 한국적 상황 속에서 적합한 문화화와 커뮤니케이션의 틀과 방식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D. 성육신과 만남의 원리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원리는 성육신이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투신하여야 한다. 성육신을 통한 내려감, 투신을 통한 참여와 만남이 없는 선교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16) 테오 순더마이어,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109

17)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J. Hesselgrave)는 두 문화의 만남으로서의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일곱 가지 영역을 제시한다. 이는 복음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응답자(선교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의미화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1. 세계관 =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2. 인식과정 - 사고의 방법 : 종족의 타고난 능력이라기보다 사회적 교육적 기회와 관련된 기능. 3. 언어적 형식 -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 :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 문화에 대한 진실한 정보들이 감춰져 있는 광맥을 구성하고 있다. 4. 행동양식 - 실행의 방법. 5. 사회구조 - 어울림이 방법 : 각 사회는 나름의 질서와 교류양식, 그리고 사회적 서열에 대한 관념 등이 있다. 6. 매체의 영향 - 메시지 유통의 방법 :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매체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매체들은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메시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매체 자체가 메시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7. 동기자원 - 결단의 방법 : 모든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결단으로 내린다. 그러나 생각하는 방식과 결단에 이르게 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 강승삼 역, *선교커뮤니케이션론*, 서울: 생명의말씀사, 1962, 168-173.

18) 라민 싸네, “복음의 토착화, 그 무한한 가능성”, 이문장, *기독교의 미래*. 서울: 청림출판, 2006, 35

19) Ibid., 36

20) 김연희, 문화와 선교 세미나, 재인용. Melvin Herskovitz, *Man and His Works*. 1948, 625

할 수 없다. 이러한 성육신적 참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생명체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다. 성육신의 원리는 단지 인간의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전통적 구령의 선교관을 넘어서게 한다. 또한 정치적 불의문제, 환경오염, AIDS, 낙태, 사형, 전쟁과 평화, 신자유주의와 불공정무역, 인권문제, 인종갈등 등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성육신적 참여와 만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육신은 긍휼의 소통이다. 성서적 의미에서 긍휼(compassion)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마음과 행위이다. 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빈곤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하며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섬김의 프락시스를 통하여 동일시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삶과 소통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이다. 성육신은 모든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 모델이다.

E.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말과 언어로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언어외적인 차원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더욱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언어적 진술 혹은 구술적 전달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기독교는 너무 말에 의존해왔다. 특히 개신교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²¹⁾ 이를 위해 설득력 있는 설교와 가르침을 추구하였고, 활자와 인쇄물에 주로 의존해 왔다.²²⁾ 특히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이라는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였다.²³⁾ Jerram Barrs의 책 'The Heart of Evangelism'은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화된 전도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관계를 맺고 - 접촉점 혹은 연결고리(bridge)를 만들고 - 상대방의 종교적 확신이나 생각을 파악하고 -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 합리적인 설득을 통하여 - 복음을 명료하게 전하고 - 마음에 도전을 주라.'²⁴⁾ 이러한 모든 시도의 이면에는 모던 시대적 사고방식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모더니즘 사고에 의하면 인간이란 이성적 존재이며 따라서 복음의 전달도 이성적 인간의 지성에 호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완벽한 이론적 체계로 정리하고 전술하면 복음을 수납하게 된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증언은 명제적 차원만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언어적 명제적 커뮤니케이션의 단조로움과 일방성을 극복하고 포스터모던 문화에 적합한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접근법과 기술이 요청된다.

4. 한국교회 선교 커뮤니케이션 진단과 대안적 모색

A. 종교적 포교에서 총체적 구원으로

21) 최창섭, 215

22) 매스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발달로 인해 한국 개신교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이나 다른 여러 종류의 미디어 매체에 참여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역시 설교나 강좌와 같은 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징이나 이미지 등 비언어적 소통에는 매우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 언론의 사유화와 상업주의적 운영으로 인해 종교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성격이 약화되고 종교언론의 근본적 동기가 훼손되고 있다. 또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의 미숙으로 발생하는 천박하고 요란한 이미지는 매체의 첨단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역기능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이와 관련된 전도커뮤니케이션 혹은 복음 커뮤니케이션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레이튼 포드, 이숙희 역, **커뮤니케이션 전도**.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2003과 찰스 크랩, 김동화 역,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IVP, 1991, 등을 참고하라.

24) Jerram Barrs, **The Heart of Evangelism**. IL., Wheaton: Crossway Books, 2001, 187-275

한국 개신교의 선교와 전도활동은 교회의 자기 증식을 위한 포교활동이었다. 미국 자본주의식 기독교의 마케팅적 선교론에 입각한 교회성장주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개종모델식의 포교적 선교는 성서적 선교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21세기의 인류의 보편적 의식과 사회문화에 적합하지도 않다. 특히 이러한 선교관의 뿌리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무지에 기인하고 있다. 이장호는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선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첫 번째 실천과제로 복음의 통전적 해석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즉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복음화와 인간화, 복음과 빵, 증언과 대화, 복음주의 선교와 에큐메니칼 선교 등의 용어가 대립적으로 사용되는 이원성을 극복하고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복음 이해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²⁵⁾ 복음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잘못된 해석이 선교의 초점을 빗나가게 하고 교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역기능적 선교 커뮤니케이션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에 대한 온전한 해석에 기초한 총체적 선교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B. 무례한 선포에서 성육신의 디아코니아로

한국 기독교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대형화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과거 핍박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할 때의 영성은 실종되고 말았다. 많은 교회가 힘을 소유하게 되고 교회의 조직과 내적 질서도 권위주의화 되었다. 심지어 교회 바깥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방식도 일방적이고도 무례한 지경이 되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러한 무례함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근본 원리이다. 육신을 입어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연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선교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성육신이 보여주는 낮아짐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화해 정신, 원수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긍휼이 선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제국주의적 선교 마인드와 스스로 강자인 듯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선교방식은 종교적인 정복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영적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성서의 약속을 확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소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육신의 원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그들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성육신적 섬김을 하도록 촉구한다. 사람들을 접촉하여 단기간에 회심시키고자 하는 일회적이고 실용주의적 전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복음적 삶의 긴 과정을 추구한다. 선교는 언제나 성육신적이어야 한다. 성육신은 자신을 비어 겸허하게 사람들의 세계와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사랑과 정의, 자비와 같은 사회적 행동과 섬김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진리를 온 세계에 증거하는 행위이다. 성육신이 없는 선교는 '나' 중심의 선교이며, 성육신적 낮아짐이 배제된 선포 역시 일방적인 포교행위에 다름 아니다.

C. 일방적 말하기에서 듣기와 대화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 대화이다. 선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에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만 하는 방식의 말하기는 일방적인 선전과 메시지 던지기에 다름 아니다. 자기 반성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취해온 선교 방식에는 이와 같은 일방성이 두드러진다. 선교 혹은 전도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내적 동기가 나름대로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일방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회심시키려 하는 시도는 사람들을 조작대상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심리적인 방법으로 사람

25) 이장호, "선교커뮤니케이션". *기독교커뮤니케이션론*, 178

들을 조건화하고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피해야 한다.²⁶⁾ 모든 사람은 전도의 목표나 대상이기 이전에 사랑과 개방적인 태도로 상호 교제하여야 할 자유로운 인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말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대화적 만남과 소통을 통하여 복음을 나누는 방식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고 상대성과 상호성을 중요시 하는 포스트모던 문화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D. 전도하는 개인에서 증인으로서의 교회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전도는 신자 개개인의 활동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주로 명제적 진리를 선포하고 의지적 결단으로 초청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복음전도는 교회 자체가 증인된 공동체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개인적인 복음전도와 사회활동의 현장에서는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언어적 증거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것은 교회가 “공동체 내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행동으로 충실하게 복음을 증거”²⁷⁾할 때이다. 더욱이 한국 개신교에는 이러한 삶의 증언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교회의 예배와 성례전, 양육과 친교, 봉사와 대외적 이미지 등 모든 것이 선교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전도행위보다 교회 자체의 생명력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복음 및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와 환영과 도전 및 설교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확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표현되는 교회의 생명력에 달려 있다.”²⁸⁾ N. 뒤나가 강조하는 바처럼 교회의 생활 전반을 통하여 말씀이 현실화되고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⁹⁾ 그러므로 온전한 선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매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공동체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이를 드러내는 선명한 매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E.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소통으로

지금 기독교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이미 자신이 주변화된 존재임을 발견하여야 한다.³⁰⁾ 즉 기독교는 지배집단이 아니며 사회 속의 다양한 집단과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교회가 진리의 편에 서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일과 매우 밀접하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며,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와 문화의 변혁을 위한 대안적 행동을 위해 기독교의 본질에 부합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공동선에 대한 관심을 늘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³¹⁾ 이를 위해서는 신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시민사회 속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개념들을 우선 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기독교시민운동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기독교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제고되어야 한다.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에 개신교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행보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매우 중요한 프락시스라고 할 수 있다.³²⁾

26) 마틴 로이드 존스, 이정선 역, **희심-심리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서울: 생명의 샘, 1994, 72

27) 하워드 스나이더, 김영국 역, **그리스도의 공동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137

28) Mark R. Gornik, **To Live in Peace: Biblical Faith and the Changing Inner City**. MI., Grand Rapid: William B. Publishing Company, 2002, 91

29) N. 뒤나, 박상래 역, **믿는다는 것 -신앙행위의 분석-**. 왜관: 분도출판사, 1980, 147-148

30) 에디 깁스, 임신희 역, **Next Church**.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266

31) 최형근, **“목회자의 윤리와 교회의 선교적 사회적 영향력의 관계”**. 기윤실 목회자리더십 2차 포럼 자료집, 2008년 12월

F. 소극적 사회참여에서 능동적인 사회선교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와의 관계의 문제는 20세기 선교론의 핵심적인 논쟁점이었다. 한국 개신교는 복음전도에 최우선적인 강조점을 두었다. 하나님의 선교론에 입각한 해방적 실천의 관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음전도와 사회적 참여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적어도 사회사역을 교회의 본질적 사역으로 이해하는 로잔언약적 이해가 요청된다. 사회적 활동은 전도와 분리된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도적 활동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복음 선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홍덕은 로잔언약이 다음과 같이 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세 가지 연관성이 있다고 정리한 것으로 해석한다. 먼저, 사회적 활동은 전도의 결과이며, 또한 사회적 활동은 전도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나아가 사회적 활동은 가교적 기능을 넘어 전도의 파트너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³³⁾ 또한 로널드 사이더는 그의 책 'Good News and Good Works' 에서 교회의 사회적 활동에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정리한다.³⁴⁾ 그 중 하나는 구제(Relief)이다. 사회적 구조악과 자연적 재난의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들이 생존하도록 돕는 일이다. 그 다음은 개발(Development)이다. 이는 사회봉사를 비롯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섬김의 사역들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이다. 이는 사회의 기본 구조를 변화시켜 법적, 정치적, 경제적인 영역을 새롭게 하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들로서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 정의, 환경보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사역이다. 한국개신교에서 기독교의 사회사역은 봉사적 사역과 치유적 사역으로만 국한하고 사회행동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언제나 이 모든 행위에 비해 복음전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여왔던 것이다.³⁵⁾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극적인 사회참여에서 적극적인 사회선교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G. 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개신교의 커뮤니케이션은 지나치게 언어적 문자적 매체에 의존하여 왔다. 이러한 언어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복하고 비언어적 소통과 다양한 매체로 소통하는 문화적 감각과 기술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상징과 기호, 교회당 건물의 문화적 요소, 목회자의 복장과 언어, 교회의 도덕적 윤리적 이미지 등 다각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³⁶⁾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 상징의 중요성은 더 없이 중요할 뿐 아니라

32) 2007년 대통령 선거과정과 2008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촛불시위 정국, 2009년도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를 둘러싼 정세의 흐름 속에서 개신교는 국민 혹은 시민사회와 소통하는데 매우 미숙하였다. 가톨릭이나 불교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오히려 정국을 주도하며 이슈를 이끌어가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신교 진영은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대열로 사회를 향하여 각각 다른 목소리와 행동방식을 노출하였다. 특히 대형교회와 보수교회를 비롯한 주류 기독교 그룹의 보수적 친권력적 경향성은 젊은 세대와 정치적인 중도와 진보적 그룹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지성인들을 개신교로부터 이반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 개신교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견지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매우 미숙하고, 선교적 관점에서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내는 내부 구심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33) 김홍덕, "교회의 사회적 책임: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세계밀알선교회 편,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서울: CLC, 2005, 239

34) Ronald J. Sider, *Good News and Good Works: A Theology for the Whole Gospel*. MI., Grand Rapid: BakerBooks, 1993, 138-139

35) 복음주의자들의 이러한 이해는 비록 소극적이지만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로잔언약적 이해에 따르면 복음증거 혹은 복음전도가 교회의 주된 임무이며, 사회참여와 사회적 개선은 회심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되어진다. David J. Boach, *Transforming Mission : Paradigm Shift in Theology of Mission*. New York: Orbis Books, 1991, 404-405

36) 교회의 난립과 교회의 대형화 현상, 그리고 대형교회 담임목사직의 세습 등은 한국 개신교의 상업주의적 이미지와 자기 권력화된 성직자의 인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었다. 이렇듯 교회의 존재방식과 활동, 성직자의 이미지들도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이는 지금과 같은 시각적 영상 시대에서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³⁷⁾ 또한 교회는 새로운 미디어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자신을 드러내고 웅변하려고 하였던 '드러남의 소통'에서 자신의 감추는 '숨김의 소통'으로, 자신의 부유함과 강함을 과시하는 방식의 '강자의 소통'에서 연약함과 절제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약자의 소통'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의 커뮤니케이션은 교회와 세상의 의사소통이며 존재방식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즉 논리적으로 요약된 복음을 제시하는 의사소통 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삐에르 바벡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접근방법과 원리를 설명하는 그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커뮤니케이션의 계시는 지적인 정보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길을 드러내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⁸⁾ 무엇보다도 복음화를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에 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역설한다.³⁹⁾ 즉 살아있는 공동체를 살아가고 보여주는 것이 곧 증언이며 복음화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교인들의 희열에 찬 삶, 공동체적 친교, 이웃 사랑의 삶 등은 그 자체로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H. 단절에서 열린 하나님 나라의 생활방식으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생활방식으로서의 증언에 관심을 가진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생활방식을 추구한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참으로 해방된 교회'(Liberating the Church)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역설하며 다음의 여섯 가지 성서적 교훈을 제시한다.⁴⁰⁾

- a. 세상에 대한 청지기직 : 생활방식과 직업을 통한 세상과 그 자원에 대한 관리 책임
- b. 산상설교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 철저한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 c.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 : 섬기는 삶, 종이 되는 복종
- d.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과 환대(Hospitality)
- e. 정의에 대한 성경적 관심을 실천함 : 경제적 나눔을 포함
- f.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주는 단순성(simplicity) : 말과 행동, 삶

이러한 생활방식은 이웃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추구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끈다. Randy Frazee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과의 만남의 공간(a Common Places)를 발견하고 보다 여유롭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며 이웃과 교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⁴¹⁾ Randy의 제안은 참으로 성경의 공동체 정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참된 이웃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이기도 하다. 우리는 좀 더 열려있어야 하고 좀 더 여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를 통하여 영적 우정을 쌓아가고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았던 장벽들을 제거해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 스스로의 영적 여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I. 선교전문가의 활동에서 평신도사역으로

한국 기독교에서 선교는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의 몫으로 복음전도는 이에 헌신하는 소수의 훈련된 전도팀

37) 로버트 E. 웨버, 정장복 역,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203

38) 삐에르 바벡, 유영남 역.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새시대*. 왜관: 분도출판사, 1993, 109

39) Ibid., 274

40) 하워드 스나이더, 권영석 역, *참으로 해방된 교회*. 서울: IVP, 2005, 297-300

41) Randy Frazee, *The Connecting Church; Beyond Small Group To Authentic Community*. MI., Grand Rapid: Zondervan, 2001, 140-148

의 은사적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선교란 이를 위해 부름 받은 소수의 별도로 세워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태도를 가져왔다. 하지만 삶의 증언을 추구하는 선교에 있어서는 모든 평신도들이 선교의 주체가 된다. 왜냐하면 사회 현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조우하며 소통하는 사람들은 평신도들이기 때문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 즉 평신도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신적인 봉사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신적인 봉사를 하도록 인도되어야 한다.⁴²⁾ 폴 스티븐슨은 평신도를 구비하여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몇 가지 중요한 원리와 방법론을 제시한다.⁴³⁾ 첫째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직업현장과 동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자리하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가라'의 구조와 '오라'의 구조를 잘 병행하여 사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교회의 '오라' 중심의 구조에 '가라'의 구조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의 각 영역에서 선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셋째로, 목회사역자에게 안수를 하고 파송하듯이 사회 내에서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들 즉 정치인, 사업가, 주식 중개인, 가정주부, 교사, 기술자, 예술가 등 평신도를 안수하고 파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직업의 현장 즉 일터야말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차적인 장소요 선교현장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건강한 평신도사역은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요체임을 알 수 있다.

5. 나가는 말

이상에서 한국교회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대안적 방향에 대해 간단히 제안하였다. 한국 개신교는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일방적 소통과 언어중심적 단선적 메시지 전달, 그리고 삶의 증언이 결여된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미숙함은 결국 한국 교회를 게토로 만들어 시민사회와 국민정서와 단절된 집단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개신교의 성장이 정체되고 수적인 감소가 나타나는 등의 제 현상은 그 동안 한국교회가 행하여온 선교 커뮤니케이션 방식 속에 이미 내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비극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자각과 자기 갱신, 사회와의 소통에 대한 관심의 회복과 커뮤니케이션의 성숙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개신교가 처한 현실은 사회문화와의 소통의 단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 궁극적으로 복음과의 소통의 단절,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에 대한 해석의 오류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의 궤도 이탈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 개신교의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적 방향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해석학적 작업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심령으로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가는 지난한 복음적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개신교가 닫힌 메신저에서 열린 대화자로 세상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게 되기를 기대한다. 

42) David J. Boach, *Transforming Mission*, 473

43) 폴 스티븐슨,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252-254

참고문헌 (Cited References)

- Barrs, Jerram. *The Heart of Evangelism* II,, Wheaton: Crossway Books. 2001
- Boa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 Paradigm Shift in Theology of Mission* New York: Orbis Books. 1991
- Frazer, Randy. *The Connecting Church; Beyond Small Group To Authentic Community*. MI., Grand Rapid: Zondervan, 2001
- Gornik, Mark R. *To Live in Peace: Biblical Faith and the Changing Inner City*. MI., Grand Rapid: William B. Publishing Company. 2002
- Sider, Ronald J. *Good News and Good Works: A Theology for the Whole Gospel*. MI., Grand Rapid: BakerBooks. 1993
- 기독교커뮤니케이션포럼 편. *기독교커뮤니케이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 테오 순더마이어, 채수일 역.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데이비드 헤셀그레이크, 강승삼 역. *선교커뮤니케이션론*, 서울: 생명의말씀사. 1962
- 데이비드 J. 보쉬, 김병길 장훈채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로버트 E. 웨버. 정장복 역.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레이튼 포드, 이숙희 역. *커뮤니케이션 전도*.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2003
- 마틴 로이드 존스, 이정선 역. *회심-심리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서울: 생명의 샘. 1994
- 베에르 바벡, 유영난 역.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새시대*. 왜관: 분도출판사. 1993
- 세계밀알선교회 편.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서울: CLC. 2005
- 에디 깁스, 임신희 역. *Next Church*.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 이문장. *기독교의 미래*. 서울: 청림출판. 2006
- 찰스 크랩, 김동화 역.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IVP. 1991
- 최창섭. *교회커뮤니케이션*.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3
- 최형근. *"목회자의 윤리와 교회의 선교적 사회적 영향력의 관계"*. 기윤실 목회자리더십 2차 포럼 자료집. 2008년 12월
- 폴 스티븐슨, 홍병룡 역.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성경적 관점에서 본 소명, 일, 사역*. 서울: IVP. 2001
- 하워드 스나이더, 권영석 역. *참으로 해방된 교회*. 서울: IVP. 2005
- 하워드 스나이더, 김영국 역. *그리스도의 공동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 N. 뒤나, 박상래 역. *믿는다는 것 - 신앙행위의 분석*. 왜관: 분도출판사. 1980



기원실 목회자 리더십 포럼

소개

기원실은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실천적인 윤리운동이며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여러 기독교 NGO의 산과 역할을 하며 작은 섬김을 하여 왔습니다. 기원실 목회자 리더십 포럼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작은 모임입니다. 그 동안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요, 평신도의 자발성을 기본 동력으로 성장하여 온 기원실 운동에 목회자가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건강한 목회자 운동을 시작한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도덕적 회복과 체질개선, 이를 통한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은 목회자의 자기 갱신과 리더십 문화의 변화를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리더십 포럼은 이러한 시급한 과제를 섬기는데 작은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와 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윤리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가운데 포럼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영적 도덕적 각성을 주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운동, 목회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운동, 목회자를 참여시키는 운동을 지향하며 우리 시대에 맡겨진 작은 소명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1. 비전(Mission Statement)

기원실 목회자 리더십 포럼은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에 입각한 바른 교회 건설과 건강한 목회의 비전을 실천하는 현장목회자의 운동으로서, 성경적 리더십 원칙과 도덕적 탁월성 및 영적 지도력을 지닌 목회리더십에 대해 연구, 계몽하고 이를 선언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참여 네트워크입니다.

2. 기본정신

1) 기원실의 정신과 강령

기원실의 정신과 기본적인 고백에 기초하며, 이를 이론과 실천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2) 성경적 리더십 원칙

일반 경영리더십 이론이나 통속적 목회론이 아닌 성경적 리더십을 추구하고, 성경적 도덕적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지향합니다.

3) 교회와 목회의 도덕적 Integrity

교회운영과 목회사역에 있어서 실용성과 외면적 성장에 앞서 정직과 성실, 겸손 및 헌신 등 근본적인 리더십 원칙을 지켜나감을 이론적 실천적 우선순위로 합니다.

4) 영적 리더십과 영향력

건조한 리더십 연구가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교인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 함께 성장하고 사역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활동내용 : 연구, 계몽, 선언, 참여(변화)

1) 연구

① 목회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 기본적 연구(혼)

리더십 원칙, 영적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 성품 리더십, 목자 리더십, 아가페 사랑.

②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에 대해 : 중추적 연구(뼈대)

교회의 본질, 제자도, 지역에 뿌리 내린 교회, 도덕적 정신적 탁월성을 지닌 교회, 비영리법인의 운영원리, 교회 시스템론 등 교회성장론이나 시대적 유행을 넘어선 본질에 대한 탐구.

③ 한국교회와 사회에 대해 : 외연적 연구(몸)

한국교회와 이 교회가 자리 잡은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로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론과 총체적 선교의 비전과 통찰력이 요청되는 영역.

신학적, 선교적, 목회적, 종교사회학적, 문화적 접근 등 입체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

④ 목회 원리와 프로그램에 대해 : 실천적 연구(활동)

원론만 나열하는 운동이 아니라 성경적 목회의 핵심 원리와 현장에 실제적으로 응용 실천할 수 있는 목회 프로그램, 모범 사례, 실천적 아이디어 등을 연구, 수집, 제공.

2) 계몽

한국교회 목회자를 포럼이 시행하는 심포지엄, 세미나, 강연 등에 참여시켜 교육함. 그 내용과 성과를 자료화하여 보급함. 기독교 매체, 언론 등을 통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 교육, 계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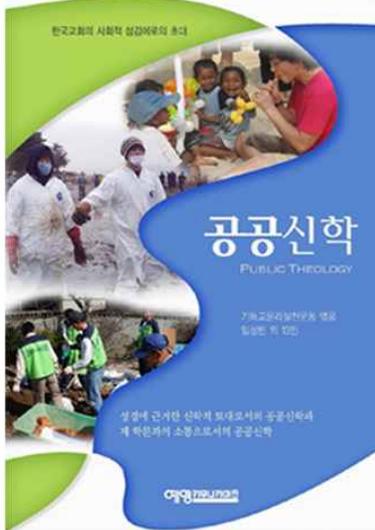
3) 선언

포럼의 결과와 연구의 열매, 그리고 교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적절한 선언문을 발표.

예 :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 강령, 한국교회 평신도 생활윤리 지침, 이슈에 따른 선언 등.

4) 참여

기윤실 운동과 목회자 리더십 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후원하는 목회자를 네트워크화 함
목회 현장에서 목회의 변화와 역동성, 그리고 건강한 열매를 추구함



공공신학 :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에로의 초대

세상 속에서 소통하는
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제시!

임성빈 외 13인 지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엮음
264면 / 12,000원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요즘 가치와 문화, 철학의 다원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세상과 신뢰성 있는 소통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다룬 책 - **손인용 목사**(덕수교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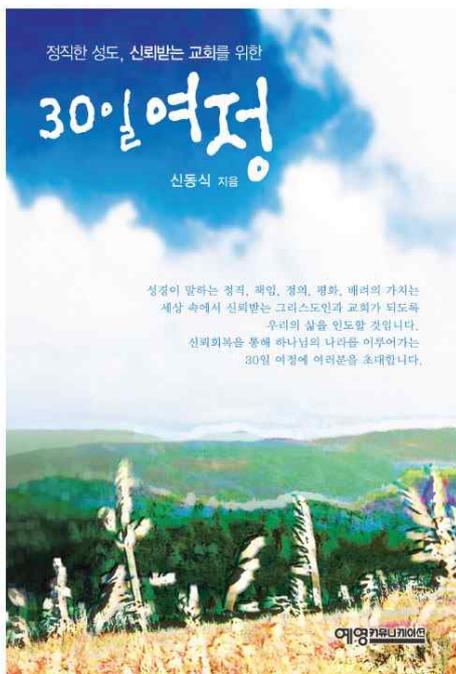
이번 공공신학 출판은 외국문헌을 국내에 소개하는것을 넘어 국내 학자들의 한국교회를 향한 애정을 담아내고, 신학적 토대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철학, 행정학, 사회학 등 제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화두를 함께 다루고 있어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 -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기윤실 공동대표)

예영커뮤니케이션 |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저자(목차순) : 임성빈(장신대) 이운경(안양대) 김호경(서울장신) 이상원(총신대) 이상화(한목협) 조성돈(실천신대) 장신근(장신대) 배요한(장신대) 최태연(백석대) 정재영(실천신대) 이승중(서울대) 강원돈(한신대) 김은혜(송실대) 양세진(기윤실)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를 통한 균형있는 성경 묵상



신동식 지음 | 9,000원 | 예영커뮤니케이션

성경이 말하는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의 가치는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신뢰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30일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단계의 묵상 여정

- * '30일 여정' 묵상교재는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1_오늘의 말씀 2_말씀 나누기 3_깊은 묵상 4_삶에의 적용
- * 5_정직한 기도 6_미션뱅크
- * 6단계의 구성은 간편하면서도 집중적인 말씀 묵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점이 다릅니다!

- * 개인 구원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 * 5개의 핵심가치를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가정, 직장과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묵상은 물론 그룹 토의 및 나눔, 특별 집회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중질만화지)로 만들었습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trusti.kr